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④	②	③	③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③	④	④	②	③	①	②

해설

-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를 바꿨습니다. (난이도 하)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난이도 중)
- 행정기구 개폐까지 주민들이 정할순 없습니다. (난이도 하)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고-지-협-재-관 중에 관료적 기업가에 관한 설명임. (난이도 하)
- 국가공무원법 1조는 국가공무원의 정의를 나타냄, 3번은 신공공 서비스는 공익이 행정의 목적, 4번은 과정설에 관한 설명 (난이도 중)
- 문제출제의도는 (3)번 같아보이는데, 국립중앙극장은 일반회계 기관이지, 특별회계기관이 아님. (난이도 최상)
- 합리적행위자: 국가와 개인은 따로, 조직과정은 SOP불확실한걸 싫어함, 엘리스는 합리+조직과정+관료 (난이도 중)
- 그. 네거티브는 이름과 달리 자율적~ (난이도 중)
- 숫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2명, 포함해서 15인 이내. (난이도 중)
- 김영삼정부때라고 생각했다면 큰일입니다. 시의원은 이승만정권 때 전쟁중에 했습니다. (난이도 상)
- 합리적인간관 (난이도 하)
- 강제배분법. 너무 잘주거나 몰아주니까 강제배분을 합니다. (난이도 하)
- 10년뒤 완공되는 교량을 후손들이 이용할테니, 지금 우리가 안 내고 후손들이 돈을 내니까 형평하다고 보는 겁니다. (난이도 중)
- 권익위는 행정위원회. 방통위, 소심위같이 그나마 위원회중 준 사법, 준입법등 파위가 썩습니다. (난이도 중)
- 변혁적리더십에 카리스마와 일부 중첩됩니다. (난이도 중)
- 브룸의 수단성은 성과가 결과가 될거라는 개인의 믿음의 세기입니다. (난이도 하)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40시간보다 길면 이상하죠? 길거 나~~가 문제가 됩니다. (난이도 하)
- 1박2일 생각하면 ST.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난이도 하)
- 맥나마라 국방장관이면 계획해서 장기간에 걸친 군사예산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예산입니다. (난이도 중)
- 이용은 정.관.항. 큰 덩어리예산은 국회가 가만 두지 않아요. 정부는 세항, 목과 같은 짜잘한 전용만 가능. (난이도 하)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95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 시험이지만,
한 두개의 실수나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심리적인 커트라인은 90~85점으로 보면 적당한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쉬운 9급 국가직 시험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6번 문제(나형 기준)가 개인적으로 오류출제로 보여 논란은 예상됩니다.

출제영역별 기준으로 보면

행정의 기초이론: 3문항(공익, 규제, 인간관)

정책론: 4문항(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자, 정책평가, 엘리스)

조직론: 5문항(리더십, 공기업, 동기이론, 책임운영기관, 위원회)

인사행정: 3문항(근평, 교육훈련, 근무방식 및 형태)

재무행정: 3문항(품목별 예산제도, 재원, 예산집행)

지방행정론: 2문항(주민참여, 지방선거)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류나 전자정부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영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골고루,

그리고 100점을 가리기 위한 문제도 딱히 없는,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어 학생들의 점수가 고득점이 예상 됩니다.

행정학, 어렵지 않습니다.